

##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과 상담 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나 현 미\*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 그리고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초기 상담(3회기~6회기)을 진행하는 상담자-내담자 총 192쌍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애착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도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 공感到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상담자 발달수준은 공감과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감은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해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성인애착 안정성이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높여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기여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수준, 공감, 작업동맹, 상담성과

\* 교신저자 : 나현미, 가톨릭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E-mail : loisna@naver.com

최근 상담성과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들이 밝혀지는 가운데, 상담자 요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김영근, 2013;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이수림, 조성호, 2010; 임전옥, 장성숙, 2015; Beutler et al., 2004; Wampold, & Brown, 2005; Kim, Wampold, & Bolt, 2006). 특히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Corey & Corey, 2006; Wampold, 2012). 상담은 전문 지식이나 기법을 넘어 상담자의 인간됨과 삶에 대한 태도 등 인간으로서의 상담자가 가장 중요하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Wampold(2001)는 상담성과는 상담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핵심적임을 밝혔고, 상담자의 태도, 존중, 진솔함, 인간적 관심 등이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중요한 상담자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영근, 2013; 김창대 등, 2008; Beutler et al., 2004). 이에 더하여 대가 상담자들의 치료관계 형성에서도 민감성, 융통성, 인식처 제공 등이 중요한 자질로 나타났다(Albert, 1997; Goldberg, 1992; Skovholt & Jennings, 2004).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기여하는 특성이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되는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적 관심, 민감성과 인식처 제공 등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담자의 성인애착에 주목하였다.

최초의 애착 관계가 유아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담자와의 새로운 애착관계다(Wallin, 2007). Bowlby(1988)에 의하면 상담자가 양육자와 마찬가지로 공감적이고 정서적인 애착 인물로서 인식처와 안전기지로 존재할 때, 내담자는 그동안 자신을 어

렵게 했던 대인관계 패턴을 검토할 수 있고 교정적인 정서체험과 새로운 애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자의 민감성과 정서적 수용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바로 상담자가 자신의 애착관계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발달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Bowlby, 1988; Daniel, 2006).

이렇듯 인간은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며 이후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88; Slade, 1999). 그러나 성인기 애착양식은 초기 양육자를 넘어 성인기 애착대상들로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성인기의 외부세계 및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한다(Fraley, Waller, & Brennan, 2000).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해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고,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모두 낮을 때 안정 애착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 애착으로 나누었다(박현주, 김봉환, 2010). 이러한 성인애착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상담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다(문형춘, 2007).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담자의 성인애착 특성은 이제 상담과정 및 상담관계에 기여하는 중요한 개인차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문형춘, 2007; Daniel, 2006; Slade, 1999). 상담자의 애착특성은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김은숙, 2011; Ackerman & Hilsenroth, 2003), 역전이 행동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 공감능력(양정연, 권경인, 2012; 윤희섭, 정현희, 2012;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다양한 애착특성

의 내담자를 대할 때의 민감성(Dozier, Cue, & Barnett, 1994)에 차이를 나타냈다. 안정 애착 상담자들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 표현을 더 자제하기 쉬웠으며(Ligiero & Gelso, 2002), 회피애착의 상담자는 적대적 역전이 행동을 더 일으켰다(Mohr, Gelso, & Hill, 2005). 또한 안정 애착 상담자는 불안정 애착 내담자의 요구를 잘 듣고 반응하며 내담자의 세계에 도전하게 하지만, 불안정 애착 상담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수준에서만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쉬웠다(Dozier et al., 1994). 이렇듯 상담자의 성인애착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담과정 변인들에 차이를 이끌어 내는 주목할 만한 특성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상담자의 애착 안정성이 긍정적인 상담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Bowlby(1988)의 주장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형춘, 2007; Daniel, 2006; Diener & Monroe, 2011; Mikulincer, Shaver, & Berant, 2013). 먼저 상담성과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chauenburg 등(2010)은 안정 애착이 높은 상담자들이 심각한 내담자들과 더 나은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와 관련됨을 밝혔고, 윤희섭과 정현희(2012)는 상담자의 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자의 작업동맹을 통해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의 안정 애착이 상담과정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이나 작업동맹을 통해 상담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특성임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하나의 상담성과로도 볼 수 있는 작업동맹과 상담자의 애착관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들에 다소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과 작업동맹을 잘 형성하지만

상담자들의 불안정 애착은 작업동맹에 방해가 된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있다(김수정, 2005; 김은숙, 2011; 정희선, 2011; Ackerman & Hilsenroth, 2003). 그러나 이와 다르게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보고되고 있다. Sauer, Lopez와 Gormley(2003)는 치료 초기 상담자의 애착불안 수준과 내담자 작업동맹이 정적으로 관련됨을 나타냈고, Marmarosh 등(2014)은 애착불안이 적은 내담자들은 애착불안이 높은 상담자와 초기 작업동맹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한편 상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은 관련이 없거나 그 상관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Romano, Fitzpatrick, Janzen, 2008). 김동민과 양정연(2012)은 상담자 애착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Ligiero와 Gelso(2002)는 치료자 및 지도 감독자 평정을 통해 치료자의 애착특성과 작업동맹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상담자의 애착특성과 작업동맹의 관계는 내담자의 애착특성과 작업동맹의 연관성보다 직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Daniel, 2006; 김동민, 양정연, 2012). 또한 상담자의 성인애착 특성이 상담과정 변인들에 효과를 미치는 과정은 다른 변인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검토가 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양립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김동민, 양정연, 2012; 문형춘, 2007). 그러나 최근 국내의 몇몇 연구들(양정연, 권경인, 2012; 윤희섭, 정현희, 2012)에서 상담자의 애착특성이 내담자의 애착특성보다 상담과정과 상담성과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 상담자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불안정 애착의 내담자들이 상담성고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상담자 요인으로는 상담자가 안전한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숙, 2012; 지승희, 이혜성,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립되는 결과들에 관심을 갖고,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수용하여 관련 매개변인들을 설정하여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구조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에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개인 차 변인으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여 서로 엇갈린 주장들의 양립 가능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로 나타난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관련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은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주며 내담자의 성장과 내적인 힘을 끌어내어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Mohr et al., 2005).

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은 한 인간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듯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며,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의 경험에도 체계적인 구조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Skovholt & Ronnestad, 1995). 국내의 심홍섭(1998)은 내담자와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가 포함된 요인으로 상담자 발달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 중 받았던 상담경험 및 수퍼비전 받은 경험, 경력에 따라 증가하였고(심홍섭, 이영희,

1998; 조수연, 권경인, 2011), 상담과정에서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김준혜, 안현의, 2013), 역전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상담자의 상담성고를 높였고(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정희선, 2011).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핵심 기제로도 밝혀지고 있는 상담자 성찰능력과 마음챙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준혜, 안현의, 2013; 유성경, 심혜원, 2005).

여기서 상담자의 성인애착은 이러한 상담자 발달수준에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안정 애착은 내담자와 협력을 촉진하는 개입기술로 나타난 자신의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등의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일 수 있으나, 상담자의 불안정 애착은 상담자 발달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선(2011)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미연(2006)의 연구에서 놀이치료자의 애착불안은 상담자 발달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애착친밀은 상담자 발달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가 높을 때 자신의 상담자 발달수준인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등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정희선의 연구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상담자 발달수준과의 관련성은 보고하지 않았지만, 상담자의 애착회피가 높을 때 상담자 발달수준을 낮추며 이를 통해 상담자의 작업동맹 및 내담자의 작업동맹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

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다수의 성인 상담자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이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자의 공감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idgway & Sharpley, 1990). 유성경과 심혜원(2005)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은 상담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말을 명료화하고 요약,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상태를 깊이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자기대화와 관련된 성찰능력이 높음을 보고했으며, 송재영과 이윤주(2014)는 경력 상담자들이 초심상담자들에 비해 인지적, 표현적, 복합적 공감유형 모두에서 높은 비율의 공감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수연과 권경인(2011)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의 상담대화기술과 인간적·윤리적 태도 영역은 공감정확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담자가 경력이 높을수록 공감정확도 능력이 증가하였다. 즉 공감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담자는 상담대화기술이 발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이 공감에 미치는 정적인 관련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찍이 Rogers(1975)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욕구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였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러한 공감적 이해를 전달하면 그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인식하고 통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이 내담자와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이수림, 조성호, 2010; 이은경, 이혜성, 1989; 임전옥, 2014; 문현미, 1989; 성예경, 최한나, 2011; Barrett-Lenard, 1981; Wynn, Wynn, 2006). 성예경과 최한나(2011)의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이 작업동맹을 향상하여 회기평가를 높였으며, Wynn와 Wynn(2006)의 연구에서도 상담 초기 상담자의 공감이 작업동맹을 촉진하여 상담성과를 높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인간적인 연민을 가질 때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촉진하여 상담성과에 기여한다는 것이다(김영란, 연문희, 2002; 이수림, 조성호, 2010; 임전옥, 장성숙, 2015).

이러한 공감능력은 아동기 애착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이수현 등, 2006), 안정 애착을 형성한 상담자들이 높은 수준의 공감을 제공할 것이라 예측하였다(Pistole & Watkins, 1995). Pistole(1999)은 상담 수련생들의 안정 애착은 공감능력과 의미 있게 관련되며 불안정 애착은 공감능력을 낮출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애착불안이 높은 상담자가 자신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을 오히려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나 경험을 더 민감하게 공감할 수 있다는 상처 입은 상담자 패러다임의 연구들도 주장되고 있다(Miller & Baldwin, 2000; Wolgien & Coady, 1997; Searle & Meara, 1999; Trusty, Ng, & Watt, 2005; 이수현 등, 2006에서 재인용). 이수현 등(2006)은 애착회피는 정서적 공감에 부적으로 애착불안은 정서적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처 입은 패러다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담 수련 수준이 낮을수록 공감 성향이 높다는 불일치도 있어 상

담 수련 과정을 통해 향상되는 것은 정서적 공감과 같은 특성적 요인이 아니라 인지적 공감 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찰된 공감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이수현 등, 2006). 또한 김은하(2013)는 상담분야에서 상담 개입으로서의 공감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김영란과 연문희(2012)는 공감 연구는 어떤 종류의 공감이 어떤 유형의 효과를 갖는가 하는 좀 더 맥락적으로 민감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개념을 Rogers (1975)가 정의한 의사소통의 측면이 강조된 공감적 이해로 정의하고, Barrett-Lennard (1981)의 공감적 이해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Barrett-Lennard(1981)의 공감은 공감적 이해 개념과 가장 유사하며(김환, 한수미, 2015), 상담자들의 공감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이수림, 조성호, 2010; 이은경, 이혜성, 1989; 임전옥, 20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평정하여,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신의 전문적 자질인 상담자 발달수준과 이러한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 초기 상담자 스스로가 지각한 자신의 공감능력 평가 결과와 실제 내담자가 평가한 공감 정확도가 유사한 지각을 나타냈으며(조수연, 2010), 내담자의 지각에 따른 공감의 평정은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적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조수연, 권경인, 2011)를 고려하였다.

한편 작업동맹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협력 관계의 질과 강도를 나타내며(Horvath & Bedi, 2002), 상담성적을 강력하게 예측한다(윤정숙, 유성경, 홍세희, 2012; Gelso & Carter, 1994; Horvath & Luborsky, 1993;

Horvath & Symonds, 1991). 특히 상담 초기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강한 작업동맹은 이후 상담성적을 예측 하는데 큰 관련성이 있었고(Horvath & Symonds,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 3회기 직후에 평가된 작업동맹의 수준이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Horvath & Greenberg, 1989). 또한 상담성과는 내담자의 작업동맹 평정이 더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림, 조성호, 2010; Horvath & Symonds, 1991). 한편 Greenberg(1986)는 상담 성과를 상담의 즉시적 성과, 중개적 성과, 최종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즉시적 성과란 특정한 개입이나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회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며, 중개적 성과란 최종적 성과를 매개하는 상담의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난 변화를 의미한다. 최종적 성과는 상담이 종결된 후 내담자의 최종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상담성과는 연구자에 따라 또한 측정 시기나 인식하는 대상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Greenberg(1986)의 제안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 회기평가 및 상담자평가를 통해 상담 초기의 즉시적 성과를 구인하고,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 내담자의 작업동맹이 이러한 즉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평가 등을 통해 이러한 즉시적 성과를 구인하였다(이은경, 이혜성, 1989; 하철호, 신희천, 2014; 성예경, 최한나, 2011). 또한 긍정적인 작업동맹은 상담회기평가의 깊이와 순조로움과 의미 있게 관련 되었고(성예경, 최한나, 2011; 이수림, 조성호, 2008; Mallinchrout, 1993), 상담자의 전문적이고 인간적 매력과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할 만하다고 지각할 때 상담 효과성은 더욱 증대 되었

다(임전옥, 2014; 이수림, 조성호, 2010; 하철오, 신희천, 2014; Barak & LaCrosse, 1975; Fuller & Hill, 1985; Schmidt & Strong, 1971).

요약하면 본 연구는 상담자 요인에 주목하여 Bowlby(1988)의 주장과 애착이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의 토대가 되는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상담자의 전문성 자질인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해 어떻게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개별적 차원으로 상담자의 전문성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이 어떠한 매개 효과를 갖는지 그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담 초기 단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상담자들에게 시사점과 훈련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는 협력자로 상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임고운, 김지현, 2008), 특히 상담 초기 단계는 상담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다양한 변인 연구를 통해 상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지속 요인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될 필요성이 있다(조수연, 권경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2를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은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이러한 근거는 최근 연구들에서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상담자의 전문성 변인들(상담자 발달수준,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상담자 및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들(정희선, 2011; 윤희섭, 정현희, 2012)에 근거하였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은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경로를 설정하였다. 최근 메타분석을 통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상관은 그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최한나, 권운주, 강귀옥, 2015; Horvath & Symonds, 1991; Martin et al., 2000), 작업동맹은 상담과정 변인들(예, 공감, 역전이 행동 등)을 매개로 상담성과(상담자평가, 상담회기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림, 조성호, 2010, 이은경, 이해성, 1989; 임전옥, 장성숙, 2015, 하철호, 신희천, 2014, 성예경, 최한나, 2011). 또한 최근 윤정숙 등(2012)의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회기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은 긍정적인 작업동맹은 이후 시점의 내담자 증상변화와 같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나, 첫 회기의 내담자 증상수준은 2회기에 측정된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상담성과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좋은 작업동맹이 선행된 이후에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은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성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안모형 1은 연구모형에서 상담자의 공감이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1개를 추가로 설정한 모형이다(그림 2). 이러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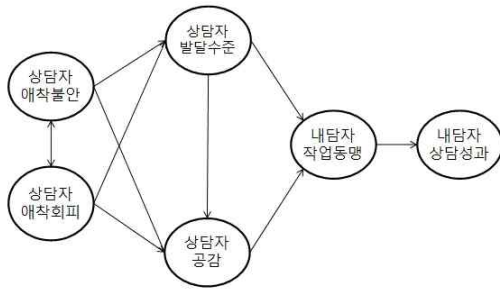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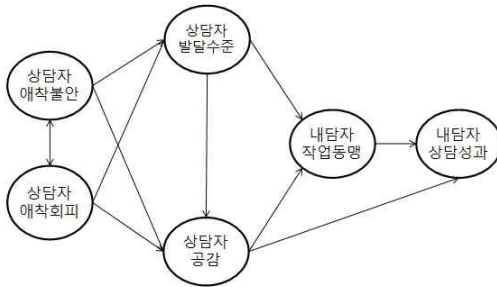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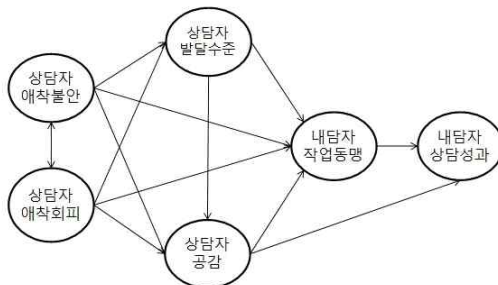


그림 3. 대안모형 2

는 공감과 상담성과 간의 메타연구 결과, 54%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고(Oilinsky, Grawe, & Parks, 1994), 상담자의 공감이 상담결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단일 요인이며(Greenberg, Watson, Elliot, & Bohart, 2001), 높은 수준의 타당화가 상담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Linchan, 1997; 유성경 등,

2009)에 근거하였다. 대안모형 2는 대안모형 1에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 2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이다(그림 3). 이는 앞서 제시한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내담자의 작업동맹 관련성을 보고한 몇몇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 공감, 내담자 작업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상담자 발달수준은 공감 및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통하여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공감은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하여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 상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사설상담센터, 대학상담센터, 공공상담기관 등에서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192명이다. 상담자의 성별은 남자가 14명(7.3%), 여자가 178명(92.7%)이었고, 연령은 최소 만 23세에서 최대 만 62세로 평균 41.59세(SD=9.07)였다. 결혼사항은 미혼이 65명(33.9%), 기혼이 125명(65.1%), 기타 2명(1.0%)이었고, 상담자들의 학력은 석



사과정 이하 68명(35.4%), 석사 졸업 97명(50.5%), 박사 과정 11명(5.7%), 박사수료 이상 16명(8.3%), 상담관련 자격에서는 1급 자격증(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1급)이 36명(18.8%), 2급자격증(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이 82명(42.8%), 기타(청소년상담사 3급 및 민간)는 31명(16.2%), 자격증 없음은 43명(22.4%)이었다. 근무기관은 사설상담센터와 병원 58명(30.2%), 대학 상담센터 69명(35.9%),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28명(14.6%), 공공청소년기관 19명(9.9%), 기업 및 기타 18명(9.4%)이었다. 상담경력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74개월로 평균 54.01개월( $SD=50.38$ )이며, 1개월~4년 미만 94명(50.8%), 4년 이상~9년 미만 70명(37.8%), 9년 이상~25년 이하 21명(11.4%)이었다.

### 내담자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는 대학상담센터, 사설상담센터, 공공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만 19세 이상이며 3회~6회에 진행 중인 내담자 중에서 연구에 동의한 192명이 참여하였다. 내담자의 성별은 남자가 44명(22.9%), 여자가 148명(77.1%)이었고, 연령은 최소 만 19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평균 32.69세( $SD=10.39$ )였다. 결혼사항은 미혼이 113명(58.9%), 기혼이 74명(38.5%), 기타 5명(2.6%)이었고, 학력은 고졸이하 32명(16.7%), 대학생 60명(31.3%), 대학교 졸업 67명(34.9%), 석사과정 및 수료 19명(9.9%), 석사졸업 및 박사수료이상 12명(6.3%), 기타 2명(1.0%)이었다. 내담자들의 주 호소문제는 복수응답으로 총 472건이었으며, 가정문제 106건(22.5%), 인간관계문제 92건(19.5%), 성격문제 87건(18.4%), 정서문제 82건(17.4%), 학업 및 진로문제 36건(7.6%), 행동 및 습관문제 33건

(7.0%), 적응문제 22건(4.7%), 기타 14건(3.0%)이었다. 설문지를 실시할 당시의 회기는 3회기에서 6회기로 3회기 61명(31.8%), 4회기 91명(47.4%), 5회기 35명(18.2%), 6회기 5명(2.6%)으로 평균 3.92회기( $SD=.76$ )였다.

### 측정도구

#### 성인애착

상담자의 성인기 애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와 Brennen(2000)이 개정한 것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 애착은 불안과 회피의 두 차원으로 측정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이 검사는 7점 척도로 총 36개 문항(불안차원 18문항, 회피차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의 불안정 애착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현의 연구에서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전체 .93이고, 불안차원 .92, 회피차원 .91이었다.

#### 상담자발달수준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심홍섭(1998)이 제작한 상담자 발달수준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대화기술 10문항, 사례이해 11문항, 알아차리기 9문항, 상담계획 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 9문항의 총 50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심홍섭(1998)의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수준

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92이고, 상담대화기술 .83, 사례이해 .84, 알아차리기 .86, 상담계획 .85, 인간적·윤리적 태도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전체 .97이고, 상담대화기술 .87, 사례이해 .88, 알아차리기 .86, 상담계획 .90, 인간적·윤리적 태도 .85이었다.

### 공감

공감척도는 Barrett-Lennard(1962)의 관계검사(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를 정방자(1986)가 변안한 상담관계질문지 중 공감 요인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3에서 +3까지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코딩과정에서 1점에서 6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 작업동맹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Bordin(1979)의 이론을 바탕으로 Horvath와 Greenberg(1989)가 개발한 작업동맹척도 단축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목표합의, 과제동의, 정서유대의 세 요인에 각 4문항으로 총 12문항의 7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혜영(1995)이 변안하여 내담자용으로 수정한 질문지 중 12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한 임전옥(2014)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임전옥(2014)의 연구에서 내담자용 신뢰도 계수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담자용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 상담회기평가

상담회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Stiles(1989)가 개발한 상담회기평가질문지(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를 이상희와 김계

현(1993)이 변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시간 자체를 평가하는 깊이와 순조로움의 두 요인으로 총 10문항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담자용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 .84이고, 깊이는 .76, 순조로움은 .77이었다.

### 상담자평가척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고자 상담자평가질문지(CRF-S)를 사용하였다. Barak과 LaCrosse(1975)가 상담자의 신뢰도, 전문성, 호감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Corrigan과 Schmidt(1983)의 단축형 척도를 오경희(1986)가 변안, 타당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각 하위요인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 7점 척도로 제시되어있다. 오경희(198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전체 .93이었다.

## 절 차

본 연구의 질문지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소재하는 대학상담기관, 사설상담센터, 공공상담기관 등에 개별적인 협조를 통해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부되었고 약 5개월에 걸쳐 회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3회기~6회기 사이 상담 진행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협조 및 연구 동의를 구하였고 각 상담회기가 끝난 이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밀봉하여 내용이 비밀보장 되도록 수거되었다. 설문에 응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회수된 상담자-내담자

총 232쌍 중에서 중복 설문 및 회기가 탈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하고 상담자-내담자 총 192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신뢰도 분석 및 측정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2와 7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여기서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그리고 공감 척도는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요인부하량의 절대 값이 높은 순서대로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부하량이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짝지어 꾸러미에 할당하였는데, 이러한 문항 꾸러미 구성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측정모형을 검증한 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2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2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2$ 수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선정하여 모형을 평가하였으며, 이들 적합도 지수는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을 평가할 수 있으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그리고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고, 배병렬(2014)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 팬텀 변인을 사용하여 간접경로들의 개별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변인 간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은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상담회기평가, 상담자평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 작업동맹은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상담경력과 상담자 관련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 애착불안은  $-.25(\rho < .01)$ , 상담자 발달수준은  $.39(\rho < .01)$ , 공감은  $.37(\rho < .01)$ 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력과 상담자 애착회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상담자 N=192, 내담자 N=19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애락불안1	1																											
2. 애락불안2	.786**	1																										
3. 애락불안3	.761**	.845**	1																									
4. 애락불안	.917**	.939**	.994**	1																								
5. 애락좌피1	.474**	.481**	.492**	.502**	1																							
6. 애락좌피2	.323**	.273**	.338**	.336**	.800**	1																						
7. 애락좌피3	.402**	.329**	.374**	.456**	.454**	.927**	.928**	.916**	1																			
8. 애락좌피	.435**	.374**	.456**	.454**	.927**	.928**	.916**	1																				
9. 상담대화기술	-.275**	-.288**	-.441**	-.361**	-.330**	-.177**	-.257**	-.276**	1																			
10. 사례이해하기	-.315**	-.312**	-.462**	-.391**	-.395**	-.224**	-.314**	-.337**	.804**	1																		
11. 말의차별기	-.229**	-.212**	-.372**	-.292**	-.235**	-.128**	-.219**	-.210**	.833**	.815**	1																	
12. 상담계획	-.236**	-.241**	-.400**	-.315**	-.362**	-.202**	-.301**	-.313**	.816**	.805**	.788**	1																
13. 인간관계비도	-.230**	-.253**	-.407**	-.320**	-.364**	-.158**	-.251**	-.279**	.751**	.771**	.695**	.709**	1															
14. 발달수준	-.282**	-.287**	-.458**	-.369**	-.372**	-.196**	-.297**	-.313**	.925**	.923**	.911**	.915**	.862**	1														
15. 공감1	-.271**	-.269**	-.407**	-.340**	-.327**	-.165**	-.237**	-.264**	.480**	.491**	.486**	.435**	.438**	.512**	1													
16. 공감2	-.308**	-.281**	-.447**	-.372**	-.273**	-.161**	-.264**	-.252**	.579**	.567**	.561**	.509**	.571**	.612**	.648**	1												
17. 공감3	-.436**	-.477**	-.568**	-.531**	-.339**	-.171**	-.230**	-.268**	.576**	.615**	.563**	.543**	.539**	.624**	.528**	.574**	1											
18. 공감4	-.318**	-.346**	-.481**	-.411**	-.290**	-.167**	-.195**	-.236**	.556**	.612**	.613**	.545**	.502**	.623**	.620**	.598**	.668**	1										
19. 공감	-.401**	-.416**	-.571**	-.498**	-.369**	-.198**	-.275**	-.304**	.652**	.681**	.661**	.605**	.608**	.706**	.833**	.846**	.859**	1										
20. 목표합의	-.046	-.056	-.111	-.077	-.059	-.074	-.079	-.076	.245**	.277**	.246**	.264**	.234**	.279**	.150**	.170**	.145**	.166**	.187**	1								
21. 과제동기	.050	-.035	-.055	-.013	-.017	-.024	-.041	-.029	.140**	.181**	.121**	.211**	.132**	.175**	.152**	.112**	.065**	.128**	.135**	.195**	.186**	.709**	.706**	1				
22. 정서유대	.043	-.035	-.066	-.020	-.077	-.049	-.055	-.065	.189**	.238**	.252**	.223**	.265**	.257**	.169**	.123**	.135**	.195**	.186**	.709**	.706**	1						
23. 자업동행	.016	-.047	-.086	-.041	-.056	-.055	-.065	-.063	.215**	.238**	.229**	.298**	.232**	.263**	.174**	.150**	.127**	.180**	.187**	.913**	.908**	.888**	1					
24. 회기평가	-.047	-.038	-.022	-.038	-.004	0.019	0.051	0.024	.168**	.197**	.154**	.204**	.177**	.199**	.057**	.104**	.195**	.112**	.142**	.463**	.398**	.480**	.495**	1				
25. 상담자평가	-.031	-.113	-.156**	-.107	-.060	-.014	-.037	-.040	.240**	.283**	.261**	.296**	.277**	.300**	.177**	.140**	.235**	.284**	.252**	.623**	.638**	.735**	.735**	.575**	1			
26. 상담성가	-.045	-.080	-.091	-.077	-.032	0.005	0.014	-.005	.225**	.264**	.226**	.275**	.248**	.274**	.123**	.135**	.238**	.211**	.214**	.600**	.566**	.666**	.675**	.915**	.856**	1		
평균	2.798	2.852	2.842	2.831	3.200	3.225	3.088	3.164	4.727	4.721	4.667	4.399	4.945	4.692	4.297	4.831	4.021	4.254	4.351	5.663	5.655	5.701	5.673	5.250	5.794	5.522		
표준편차	.940	.852	.914	.839	.824	.809	.803	.750	.497	.503	.526	.603	.506	.478	.620	.515	.674	.581	.501	.821	.783	.765	.713	.0866	0.677	0.686		
왜도	.246	.379	.180	.362	.284	-.127	.173	.094	-.199	-.361	-.226	-.289	-.651	-.253	-.017	-.463	.261	.313	.258	-.692	-.853	-.457	-.637	-.262	-.442	-.231		
첨도	-.627	-.387	-.719	-.523	-.283	-.304	-.231	-.232	-.001	.160	.512	.317	.940	.346	-.404	.796	.170	.019	.098	.924	1.780	-.109	.861	-.517	-.092	-.410		

주. 1~19 상담자 측정변인, 20~26 내담자 측정변인. \*\*p<.05, \*\*\*p<.01, \*\*\*\*p<.00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 (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으로 적절히 구인하는지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chi^2(df=155, \text{상담자 } N=192, \text{내담자 } N=192)=282.797, p<.000, CFI=.957, TLI=.948, RMSEA=.066$  90%CI[.053, .078]. 또한 상담자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애착불안이 .84-.94, 애착회피는 .86-.91, 공감은 .72-.82, 발달수준은 .82-.91, 내담자 작업동맹은 .84-.87, 내담자 상담성과는 .62-.93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상담자 N=192, 내담자 N=192)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부하량	표준화 부하량	S.E.	t
상담자 애착불안	→	애착불안1	1.000	.835		
	→	애착불안2	.982	.905	.061	16.078***
	→	애착불안3	1.088	.935	.065	16.713***
상담자 애착회피	→	애착회피1	1.000	.910		
	→	애착회피2	.947	.877	.056	16.968***
	→	애착회피3	.921	.860	.056	16.415***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대화	1.000	.910		
	→	사례이해	1.012	.910	.049	20.494***
	→	알아차림	1.041	.895	.053	19.620***
	→	상담계획	1.178	.883	.062	18.949***
	→	인간윤리태도	.914	.817	.057	15.916***
상담자 공감	→	공 감1	1.000	.722		
	→	공 감2	.877	.761	.088	9.960***
	→	공 감3	1.209	.803	.115	10.487***
	→	공 감4	1.065	.819	.100	10.688***
내담자 작업동맹	→	목표합의	1.000	.841		
	→	과제동의	.950	.838	.069	13.727***
	→	정서유대	.960	.867	.067	14.357***
내담자 상담성과	→	상담회기평가	1.000	.620		
	→	상담자평가	1.170	.928	.138	8.477***

\*\*\* $p<.001$

유의하였다.

모형검증 및 최종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 그리고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2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2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결과,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하여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1)=289.891, p<.001, CFI=.957, TLI=.949, RMSEA=.065$ . 또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하여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공감이 상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 1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0)=285.369, p<.001, CFI=.958, TLI=.950, RMSEA=.064$ . 더불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감이 상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안모형 2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8)=284.751, p<.001, CFI=.958, TLI=.949, RMSEA=.065$ . 따라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 2는 서

로 내포된 관계이기 때문에 배병렬(2014)의 제안에 따라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CFI, TLI, RMSEA를 함께 검토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의 자유도(df) 차이는 1이고, 자유도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3.84보다 커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chi^2$ 값의 차이는 4.522로 임계치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elta\chi^2(1)=4.522, p<.05$ ). 따라서 경로가 1개가 더 추가된 대안모형 1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2의 자유도(df) 차이는 3이고, 자유도가 3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7.815보다 커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chi^2$ 값의 차이는 5.14로 임계치보다 낮아 유의하지 않았다( $\Delta\chi^2(3)=5.14, p>.05$ ). 따라서 경로 세 개가 적은 간명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보다는 대안모형 1이 적합하고, 대안모형 2보다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안모형 1이 가장 적합한 모형이며, TLI, CFI, RMSEA값 역시 대안모형 1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공감이 내담자의 상담성과로 가는 직접경로가 1개가 추가된 대안모형 1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대안모형으로 제시되지 않은 직접경로들(예. 발달수준→상담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chi^2$	df	$\Delta\chi^2$	$\Delta df$	p	TLI	CFI	RMSEA 90%CI
연구모형	289.891	161			.000	.949	.957	.065 [.053, .077]
대안모형1	285.369	160	4.522*	1	.000	.950	.958	.064 [.052, .076]
대안모형2	284.751	158	5.140	3	.000	.949	.958	.065 [.053, .077]

성과 등)을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경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모형의 잠재 변인들 간의 구조 경로 추정치, 효과크기 및 유의 수준을 표 4에 제시

표 4. 최종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B)	표준오차 (S.E)	t	표준화 추정치(B)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192	.049	-3.948***	-.333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발달수준	-.106	.050	-2.116*	-.176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공감	-.185	.040	-4.616***	-.326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공감	.026	.038	.680	.043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658	.076	8.651***	.667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484	.216	2.242*	.316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작업동맹	-.064	.225	-.282	-.041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상담성과	.144	.069	2.077*	.120
내담자 작업동맹 → 내담자 상담성과	.637	.086	7.391***	.823

\* $p < .05$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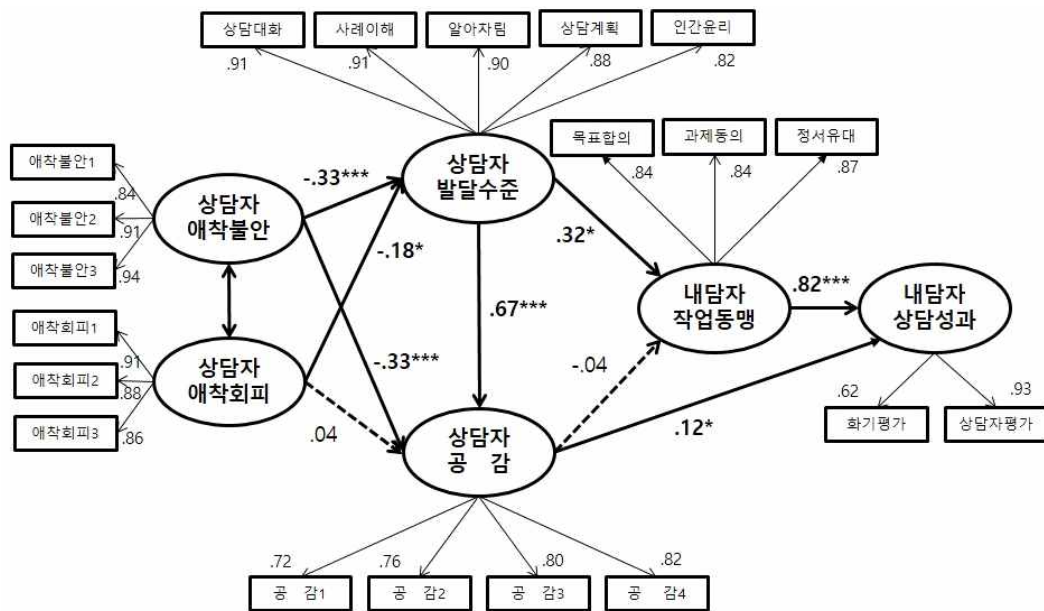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 $p < .01$ , \*\*\* $p < .001$

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자신의 전문성 변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착불안은 상담자 발달수준에  $-.333(p<.001)$ , 공감에는  $-.326(p<.001)$ 의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176(p<.05)$ 의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은 공감에  $.667(p<.001)$ 의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내담자의 작업동맹에는  $.316(p<.05)$ 으로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공감은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120(p<.05)$ 의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내담자의 작업동맹에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내담자의 상담성과  $.823(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각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 발달수준은 각각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매개하여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고,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해서도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만 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담자의 공감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내담자의 상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최종모형에서 측정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변수가 2개 이상 일 때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간접효과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랩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안(Taylor, MacKinnon, & Tein, 2008)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원자료( $N=192$ )에서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4를 통해 구조모형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애착회피에서 공감으로 가는 경로와 공감에서 내담자의 작업동맹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든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 발달수준을 매개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상담자 애착불안이 공감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을 통해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나타났다. 또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간접효과만 도출되



표 5.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333***		-.333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공감	-.326***	-.222**	-.548
상담자 애착불안 → 내담자 작업동맹		-.083	-.083
상담자 애착불안 → 내담자 상담성과		-.134*	-.134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발달수준	-.176*		-.176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공감	.043	-.118*	-.075
상담자 애착회피 → 내담자 작업동맹		-.053*	-.053
상담자 애착회피 → 내담자 상담성과		-.052	-.052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667***		.667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작업동맹	-.041		-.041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상담성과	.120	-.034	.086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316*	-.027	.289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상담성과		.318**	.318
내담자 작업동맹 → 내담자 상담성과	.823***		.823

\* $p < .05$ , \*\* $p < .01$ , \*\*\* $p < .001$

고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개별 매개효과는 10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자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상담자 공감  $-.126$  ( $p < .01$ ), 상담자 애착회피→상담자 발달수준→상담자 공감  $-.070$  ( $p < .05$ ), 상담자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내담자 작업동맹  $-.093$  ( $p < .05$ ), 상담자 애착회피→상담자 발달수준→내담자 작업동맹  $-.051$  ( $p < .05$ ), 상담자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내담자 작업동맹→내담자

상담성과  $-.059$  ( $p < .05$ ), 상담자 애착회피→상담자 발달수준→내담자 작업동맹→내담자 상담성과  $-.033$  ( $p < .05$ ), 상담자 발달수준→내담자 작업동맹→내담자 상담성과  $.308$  ( $p < .05$ ), 상담자 발달수준→상담자 공감→내담자 상담성과  $.095$  ( $p < .05$ ), 상담자 애착불안→상담자 공감→내담자 상담성과  $-.027$  ( $p < .05$ ), 상담자 애착불안→상담자 발달수준→상담자 공감→내담자 상담성과  $-.018$  ( $p < .05$ )의 경로는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각각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검증되었다. 공감에서 내담자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로 가는 경로와 애착회피에서 공감을 통해 상담성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

표 6. Phantom Variable을 통한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인	경로			비표준화 주정치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매개변인	종속변인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126**	[-.212, -.063]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070*	[-.148, -.006]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093*	[-.210, -.017]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051*	[-.135, -.002]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 내담자 상담성과	-.059*	[-.135, -.011]	
상담자 애착회피	→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 내담자 상담성과	-.033*	[-.080, -.001]	
		상담자 발달수준	→ 내담자 작업동맹	→ 내담자 상담성과	.308*	[.054, .599]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상담성과	.095*	[.005, .180]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상담성과	-.027*	[-.058, -.001]	
상담자 애착불안	→ 상담자 발달수준	→ 상담자 공감	→ 내담자 상담성과	-.018*	[-.041, -.001]	

\* $p < .05$ , \*\* $p < .01$

###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 그리고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양한 임상 실재에서 초기 상담(3회기~6회기)을 진행하는 상담자-내담자 총 192쌍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1, 2를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대안모형 1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의 전문성 변인인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회

피가 상담자 발달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정희선(2011)의 연구와 놀이치료자의 애착불안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던 허미연(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상담자들의 성인애착이 안정적인 때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상담자의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가 높을 때는 내담자와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등 상담자 발달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와는 다르게 학력, 경력, 자격증 수준을 통해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측정할 윤희섭과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는 발달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애착특성을 안정적이라고 지각하였으나, 발달수준이 높은 상담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애착특성을 불안정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학력, 경력, 자격

증 수준 등 외면상의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이해, 상담계획 등 내담자와 관계를 촉진하는 상담 개입기술로의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상담경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애착회피와 상담경력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자신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구체적인 개입 기술로서의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편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담자의 애착불안 수준이 결렬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에서 공감 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던 Rubino, Barker, Roth, & Fearon(2000)의 연구결과와 안정 애착의 상담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애착이론의 가정(Pistole, 1999)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고 타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를 보이는 사람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져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Barnett, 1987; Joireman, Needham, & Cummings, 2001; 이주혜, 조영아, 2014에서 재인용)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처 입은 패러다임의 주장(Miller & Baldwin, 2000; Wolgien & Coady, 1997; Searle & Meara, 1999; Trusty, Ng, & Watt, 2005; 이수현 등, 2006에서 재인용)과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정서적 공감과 같은 상담자의 특성 공

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던 연구결과(이수현 등, 2006)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를 어느 정도 공감적으로 이해했는지에 따른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심리적 상처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상처에 잘 반응할 수는 있지만 타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김환과 한수미(201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공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공감에 부적상관  $-.30(p < .001)$ 이 나타났지만 최종모형에서는 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고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회피가 애착불안 보다 공감에 더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애착이론 및 Pistole(1999)의 주장과는 비교적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높은 애착회피의 특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심리 정서적으로 반응을 차단하고 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나 타인에게 괜찮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Wallin, 2007), 비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단절을 발달시켜 내적인 정서적 경험에 대해 방어하고 부인하려는 성향(Mikulincer & Shaver, 2007)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상담자들에게도 반영된 것이라면 애착회피가 높은 상담자들은 자신의 애착특성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이는 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은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회피와 상담자의 지각

된 공감의 관련성만을 살펴보고,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상담자 이외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각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자의 애착회피를 매개하여 상담자 및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쳤던 정희선(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매개하여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나타냈던 연구결과들(김수정 2005; 김은숙, 2011; 정희선, 2011; Ackerman & Hilsenroth, 200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 초기에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Marmarosh et al., 2014; Sauer et al., 2003)과 상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은 관련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김동민, 양정연, 2012; Ligiero & Gelso, 2002; Romano et al., 2008)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Bowlby(1988)의 주장과 같이 상담자의 애착 안정성이 반응적인 보살핌을 촉진하며 애착의 불안정성은 보살핌 행동을 손상시킨다는 주장(Mikulincer & Shaver, 2007)과 맥을 같이한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엇갈린 주장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그 관계를 밝혀주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결과로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내담자의 작업동맹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상담자의 성인애착 안정성이 상담자의 전문성 변인인 상담자 발달수준을 높여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형성을 촉진하여 상담성가에 기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내담자의 상담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상담 초기에 즉시적 성과로도 볼 수 있는 상담회기평가(깊이와 순조로움)와 상담자평가(신뢰성, 호감성, 전문성)를 통해 평정한 내담자의 상담성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작업동맹을 높게 지각하면 자신의 회기성고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하철오, 신희천, 2014)와 일치하며, 작업동맹과 상담성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 많은 선행연구들(이수림, 조성호, 2010; 윤정숙 등, 2012; Gelso & Carter, 1994; Horvath & Luborsky, 1993; Horvath & Symonds, 199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며 이러한 내담자의 작업동맹이 높으면 긍정적인 상담성가에 기여함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다.

셋째,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을 통해,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해 내담자의 상담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애착회피와 달리 상담자의 공감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공감이 내담자의 상담성가(상담회기평가, 상담자평가)로 직결되는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공감이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상담성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Linehan, 1997; 유성경 등,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높으면 상담자 자신의 발달수준과 공감지각을 방해하게 되고 이때 내담자들도 상담자에 대해 호감이나 신뢰,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며, 그 회기를 순조롭지 못하고 깊게 경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상담 초기에 자신의 애착불안 특성이 내담자의 상담성과(상담회기평가, 상담자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대와 달리 상담자의 공감은 내담자의 작업동맹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통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연구결과들(이은경, 이해성, 1989; 임진옥, 2014; 성예경, 최한나, 2011; Barrett-Lenard, 1981; Wynn, Wynn, 2006)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 형성을 촉진하는 변인은 상담자의 공감보다는 상담자 발달수준이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작업동맹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작업동맹 전체와 목표합의 및 정서유대는 공감과 상관이 나타났으나 내담자의 과제동의와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담자와의 과제동의에 있어서는 상담자 공감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담대화기술이나 상담계획 등의 상담자 발달수준이 더 촉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담자 변인의 영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박광석(2001)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은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내담자의 지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상담자의 공감 수준이 높을 때가 낮을

때에 비해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상담자의 공감이 내담자와 작업동맹 형성에서 내담자의 대인 행동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Horvath & Luborsky, 199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평정했기 때문에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과 내담자 작업동맹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함께 평정하여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상담자의 공감이 초기보다는 중기 단계와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문현미, 1989; 김영란, 연문희, 2002)도 보고되고 있어 상담 중기단계나 이후 단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이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자 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 요인에 주목하여 Bowlby(1988)의 주장과 애착이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의 토대가 되는 성인애착이 상담자의 전문성 자질인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을 통해 상담 초기 어떻게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기여하는지를 다양한 임상 실례에서 상담자-내담자 총 192쌍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각각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상담 초기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강력한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상담자의 공감에 상

담자의 애착회피 보다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두 애착 차원의 개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공감과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의 이중매개를 통해 상담 초기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담자의 작업동맹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인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感到에 큰 영향을 미쳐서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 초기 단계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넓혀 주었으며, 더불어 상담자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상담자 훈련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자의 전문성 변인인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感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담자 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담자의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련 매개변인들의 중요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가 높을 경우에 자신의 성인애착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感到를 높여나가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상담자 발달수준과 관련된 상담자 훈련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상담자들이 여러 교육 및 훈련들과 함께 교육분석과 자기성찰에 더욱 관심을 가져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김민정과 조화진(2015)은 교육, 실무, 슈퍼비전 경험수준이 높고 여기에 교육분석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

담자 발달수준이 가장 높고 특히 알아차리기와 상담계획에서 높은 발달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교육분석이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가 되어 자신의 내적 경험과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을 알아차리는 것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처치를 구체화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 할 때 이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발달영역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자신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심홍섭, 1998). 즉 상담자들 자신의 인간적 자질에 대한 전문적인 성찰의 자세가 숙련 상담자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황주연, 정남운, 2010). 따라서 상담자들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수준에 핵심 기제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성찰(고윤희, 박성현, 2014; 유성경, 심혜원, 2005; 황주연, 정남운, 2010)과 이와 관련된 정신화와 마음챙김에 더욱 관심을 두고 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Wallin(2007)에 의하면 안정 애착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되며 정신화 능력은 안정 애착일수록 그 수준이 높아 애착 외상이나 관계적 외상의 보호요인이 되고, 정신화와 마음챙김은 둘 다 안전기지의 내면화된 경험과 통합에 기여하여 내담자가 자유롭게 느끼고 성찰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정신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정신화와 마음챙김을 통해 성찰적 수련을 지속해서 증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지각된 공感到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확인하고 상담자 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상담자 발달 수준을 통해 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상담자의 공감에 직접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정서적 공감과 같은 특성 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수현 등(2006)의 연구결과와 상처 입은 패러다임의 주장과는 다른 차이가 확인된 결과이다. 즉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높을 때 상담자의 공감 지각을 직접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애착과 관련된 자기수련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성찰 능력과 관련된 상담자 훈련을 살펴보면, 상담자들이 애착불안이 높다면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수용 받은 경험에서 함양되는 정서조율과 관련된 정신화 능력(Wallin, 2007)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내담자가 전달하는 것에 대해 상담자가 공감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은 주로 상담자의 정신화 능력에서 나오며,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뿐 아니라 자신과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듯 자신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찰적 태도로 조절하는 능력은 대개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로 치료를 받아 본 상당한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Wallin, 2007). 한편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단절이나 정서적 경험을 방어하고 부인하는 성향과 관련되며 (Mikulincer & Shaver, 2007), 애착 회피형 상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 의존적인 내담자를 불편해하고 내담자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경인, 양정연, 2015). 이에 권경인과 양정연(2015)은 애착 회피형 상담자는 상담자로서 필요한 정서적 자각과 민감성

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애착회피가 높은 상담자들은 마음챙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훈련해 볼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마음챙김의 태도는 현재 순간에 굳건히 머무르는 경험을 촉진하며 내담자들의 즉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의 요구에 온전히 좀 더 함께 열려있는 반응을 할 수 있고 수용하는 태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in, 2007). 따라서 애착회피가 높은 상담자들은 마음챙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훈련해 나간다면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고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주목하여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상담자의 전문성 자질인 상담자 발달수준과 공감을 통하여 상담 초기 어떻게 내담자의 직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관련되는지 상담자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담은 이자 간의 상호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인애착 특성과 관련 변인들을 함께 설정하여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인애착 특성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 위계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 분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겠다. 둘째,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정신화 능력이나 마음챙김 등 상담자 성찰능력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본다면 상담자들의 성찰적 수련에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상담경력

은 4년 미만의 초심 상담자가 50.8%를 차지하고, 9년 이상의 숙련 상담자는 1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담경력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담경력 수준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자 발달수준이나 다른 변인들과 상담경력이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애착불안은 상담경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상담경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안정 및 불안정 성인애착 특성을 지닌 상담자들이 상담경력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발달적 차이를 통해 숙련된 전문상담자로 성장해 나가는지 종단적인 관점을 가진 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통해 상담자 변인들의 관련성과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상담 초기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상담자 이외 내담자의 지각된 공감을 평정하여 상담 초기나 중기단계에서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초기 상담성과 구인에서 상담회기평가와 상담자평가를 통해 Greenberg(1986)가 제안한 즉시적 성과를 구인하였는데 이러한 초기의 즉시적 성과가 중기나 후기에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즉시적 성과는 본 연구에서 구인한 방법 이외 내담자 체험수준, 내담자 주관적 반응 등 상담자의 각 반응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즉시적 치료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금명자, 이장호, 1994; Hill et al., 1988)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즉시적 성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연구 설계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편, 양적인 측정 이외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의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상담자 및 내담자의 인터뷰 자료나 상담 녹어록 등을 통한 질적인 연구도 중요하겠다.

끝으로, 상담자의 안정된 애착 토양이 내담자의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에 기여한다는 Bowlby(1988)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담전문가들도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좌절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좌절의 심리적 과정을 그대로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전문 상담자들은 고통스러운 한 인간으로 앉아 있는 내담자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담자 마음에 들어가 함께 하는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공감과 직면을 통해 내담자가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하는 내적으로 축적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좌절 극복을 통한 인격의 성숙과 전문적 자신감을 획득하여 점차 “안아주는 환경”으로서 자기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되어간다(오현수, 한재희, 2009). 따라서 상담자들은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다양한 삶의 경험에 대해 성찰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상담자로서 안정된 내담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개발해야 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 안에 이런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Wallin, 2007).

## 참고문헌

강혜영 (1995).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 차이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권경인, 양정연 (2015). 회피애착형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6(3), 25-49.
- 권지숙 (2012). 작업동맹 형성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 내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국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 양정연 (2012). 작업동맹 지각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성인애착패턴의 효과: 행위자-파트너 상호의존 모델(APIM) 분석. 상담학연구, 13(6), 2523-2542.
-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수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6(3), 67-84.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05).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02.
- 김영란, 연문희 (2002). 상담단계별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체험 및 상담성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9-38.
- 김은숙 (2011). 상담자와 내담자의 애착과 대상관계 수준에 따른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3). 상담학에서 공감 연구에 대한 고찰: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5), 2851-2867.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이해, 34(2), 95-109.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 환, 한수미 (2015). 어릴 적 외상 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51-274.
- 금명자, 이장호 (1994). 상담단계와 내담자의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패턴의 즉시적 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48-98.
- 문현미 (1989). 공감적 이해와 상담효율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형춘 (2007).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09-63.
- 박광석 (2001). 내담자의 친애 및 지배수준과 상담자의 공감에 따른 작업동맹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김봉환 (2010).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33-52.
- 배병렬 (2014).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성예경, 최한나 (2011). 내담자의 타당화 경험이 작업동맹과 회귀평가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15-332.

- 송재영, 이윤주 (2014). 초심상담자와 경력 상담자의 공감유형의 차이분석. *상담학연구*, 15(1), 123-144.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개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홍섭, 이영희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 양정연, 권경인 (2012).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 조합에 따른 상담관계: 작업동맹, 역전이 행동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91-915.
- 오경희 (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 도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수, 한재희 (2009). 상담전문가 발달과정에서의 좌절극복경험 분석. *상담학연구*, 10(1), 109-124.
- 이상희, 김계현 (1993). 상담회기 평가질문지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림, 조성호 (2010). 상담자의 지혜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71-94.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이은경, 이혜성 (1989). 공감적 이해와 상담 효율성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의 상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56-68.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 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자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임전옥 (2014).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전옥, 장성숙 (2015).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491-518.
- 유성경, 손난희, 김창대, 홍세희, 권경인, 한영주, 윤정숙, 윤정순 (2009). 상담자의 타당화 수준 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0(4), 1873-1889.
- 유성경, 심혜원 (2005). 상담자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789-812.
- 윤정숙, 유성경, 홍세희 (2012).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4), 1903-1919.
- 윤희섭, 정현희 (2010).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발달수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상담학연구*, 11(2), 485-505.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 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3(5), 2463-2482.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희선 (2011). 상담자 및 내담자 애착 회피요

- 인, 상담자발달수준과 작업동맹.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 (2010). 초기상담에서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른 공감정확도와 상담 만족도: 임상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 권경인 (2011). 초기상담에서 상담자경력별 공감 정확도와 상담만족도: 임상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담자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57-275.
- 지승희, 이해성 (2010).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55-73.
- 최한나, 권윤주, 강귀옥 (2015).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1990-2014). 상담학연구, 16(3), 85-99.
- 하철오, 신희천 (2014). 상담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작업동맹이 상담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79-901.
- 황주연, 정남운 (2010). 상담자 자기성찰(Self-Reflection)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41-263.
- 허미연 (2006). 놀이치료자의 성인애착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ckerman, S. J., & Hilsenroth, M. J.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1), 1-33.
- Albert, G. (1997).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sychotherapists? The experts speak. *Journal of Practical Psychology and Behavioral Health, 3*, 36-4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ak, A., & LaCrosse, M. B. (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6), 471-476.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sca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eutler, L. E., Malik, M., Alimohamed, S., Harwood, T. M., Talebi, H., Noble, S., & Wong, E. (2004). Therapist effects.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 227-306.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16*(3), 252-260.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orey, M. S., & Corey, G. (2006). *Becoming a*

- helper. Cengage Learning.
- Corrigan, J. D., & Schmidt, L. D.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Diener, Marc J.,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48*(3), 237-248.
- Daniel, S. I. (2006). Adult attachment patterns and individual psychotherapy: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968-984.
- Dozier, M., Cue, K, L., & Barnett, L. (1994). Clinicians as caregivers: Role of attachment organization in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4), 739-800.
- Fuller, F., & Hill, C. E. (1985). Counselor and helpee perceptions of counselor intentions in relation to outcome in a single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29-338.
- Fraley, R. D.,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296-306.
- Goldberg, C. (1992). *The seasoned psychotherapist*. New York: W. W. Norton & Co.
- Greenberg, L. S. (1986).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1), 4-9.
- Greenberg, L. S., Watson, J. C., Elliott, R., & Bohart, A.(2001). Empath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4), 380-384.
- Hill, Clara E., Helms, Janet E., Tichenor, Victoria., Spiegel, Sharon B., O'Grady, Kevin E., & Perry, Elgin. (1988). The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3), 222-233.
- Horvath, A. O., & Bedi, R. P. (2002). The alliance.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pp. 37-6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223-233.
- Horvath, A. O., & Luborsky, L. (1993).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61-573.
- Horvath, A. O., & Symond,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Kim, D.,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 effects modeling of the NIMH TDCRP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2), 161-172.
- Ligiero, D. P., & Gelso, C. J. (2002). Countertransference, attachment, and the working alliance: The therapist's contributio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 Training*, 39(1), 3-11.
- Linehan, M. M. (1997). Validation and psychotherapy. In A. C. Bohart & L. S. Greenberg (Eds.),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pp. 353-3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llinckrodt, B. (1993). Session impact, working alliance, and treatment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25-32.
- Marmarosh, Cheri L., Kivlighan Jr., Dennis M., Bieri, Kathryn., LaFauci Schutt., Jean M., Barone, Carrie., & Choi, Jaehwa. (2014). The insecure psychotherapy base: Using client and therapist attachment styles to understand the early alliance. *Psychotherapy*, 51(3), 404-412.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3), 438-450.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 Berant. E. (2013).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therapeutic processe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Special Issue: 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81(6), 606-616.
- Mohr, J. J., Gelso, C. J., & Hill, C. E. (2005). Client and counselor trainee attachment as predictors of session evalu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n the first counseling ses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98-309.
- Orlinsky, D. E., Grawe, K. & Parks, B. K. (1994).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Garfield & A Be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3rd., pp. 270-376) New York: Wiley.
-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s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7-446.
- Pistole, M. C., & Watkins, C. E. Jr. (1995). Attachments theory counselling process and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57-458.
- Ridgway, I. R., & Sharpley, C. F. (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4, 165-177.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mano, V., Fitzpatrick, M., & Janzen, J. (2008). The secure-base hypothesis: Global attachment, attachment to counselor, and session exploration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95-504.
- Rubino, G., Barker, C., Roth, T., & Fearon, P. (2000). Therapist empathy and depth of interpretation in response to potential alliance ruptures: The role of therapist and patient attachment styles. *Psychotherapy Research*, 10(4), 408-42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uer, E. M., Lopez, F. G., & Gormely, B. (2003).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rapist and client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early working alliance: A preliminary growth modeling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13(3), 371-382.
- Slade, A. (1999).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with adult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575-594). New York: Guilford Press.
- Stiles, W. B. (1989). *Use of the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anuscript, Miami University.
- Schauenburg, H., Buchheim, A., Beckh, K., Nolte, T., Brenk-Franz, K., Leichsenring, F., Strack, M., & Dinger, U. (2010). The influence of psychodynamically oriented therapists' attachment representations on outcome and alliance in inpatient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20, 193-202.
- Schmidt, L. D., & Strong, S. R. (1971). Attractiveness and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348-351.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4). *Master Therapists*. Boston: Pearson.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Oxford: John Wiley & Sons.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Y.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241-269.
- Wallin, Davi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Y: Guilford Press.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Wampold, B. E. (2012). Humanism as a Common Factor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49(4), 445-449.
- Wampold, B. E., & Brown, G. S. (2005). Estimating variability in outcomes attribute to therapists: A naturalistic study of outcomes in managed car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914-923.
- Wynn, R., & Wynn, M. (2006). Empathy as an interactionally achieved phenomenon in psychotherapy: Characteristics of some convers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ragmatics*, 38(9), 1385-1397.

원고접수일 : 2016. 03.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5. 06

게재결정일 : 2016. 05. 25

##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Adult Attachment,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and Empathy, Client's Working Alliance and Counseling Outcomes in Early Counseling Phase

Hyun-Mi Na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selor's adult attachment, the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and empathy of counselors, the client's working alliance and their effect on the counseling process. Three hypothesized model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both counselor attachment anxiety and counselor avoidance negatively influenc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and empathy. Second, the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positively impact both counselor empathy and the client working alliance. Additionally, results showed that counselor's empathy seems to have direct impact on the client counseling outcomes. Third, both counselor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client's working alliance and the counseling outcomes through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Fourth, counselor attachment anxiety has an indirect effect on client counseling outcomes through both counselor development levels and empath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or, adult attachment,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empathy, working alliance, counseling outcomes